

인문학연구원 소식

■ 학술대회 | 윤동주-윤이상 탄생 100주년 기념 학술대회 <문자와 소리에 담긴 고향>



본 연구원은 2017년 12월 12일 16시 30분부터 22시까지 연세대학교 문과대학 100주년 기념홀에서 윤동주-윤이상 탄생 100주년 기념 학술대회 <문자와 소리에 담긴 고향>을 개최하였다. 이번 학술대회는 윤동주와 윤이상의 삶과 예술을 되새기면서 문학계와 음악계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발표와 토론을 했다.

클라리넷 연주자 백양지의 연주로 윤이상의 ‘피리’를 감상하는 자리도 마련되었으며 윤동주의 시 중에서도 특별히 사랑받는 세 편의 시 ‘서시’, ‘자화상’, ‘소년’에 작곡가 전경숙이 선율을 붙인 가곡이 김보미(연세대)의 지휘로 연주되었다. 조대호 인문학연구원장은 인사말에서 “동갑내기라는 게 생소할 만큼 다른 시대를 산 윤이상과 윤동주를 한 자리에 불러모아 둘 사이 연관성을 살펴보는 것이 오늘 학술대회의 목적”이라며 “아직은 단순히 두 사람의 삶을 나란히 늘어놓는 데 그치겠지만 그런 병치 작업조차 한국 예술을 전체적으로 그리는 데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1부 : 사회 주일선(연세대)

- 다큐멘터리 상영 : 새로운 음악으로 가는 길 - 윤이상의 무악
인사말 : 조대호 (인문학연구원장)
- 유성호(한양대) : 고백과 너머의 시인 윤동주
 - 홍은미(한예중) : 윤이상이 음(音)들로 쓴 시
 - 백양지(유라시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피리’(클라리넷 버전)

2부 : 사회 흥유회(연세대)

- 윤동주 가곡 연주 : ‘서시’, ‘자화상’, ‘소년’
 - 김응교(숙명여대) : 릴케와 윤동주
 - 이희경(서울대) : 미완의 귀향, 윤이상 음악의 한국 수용
- 종합토론 및 사회 : 윤혜준(연세대)

■ 대중강좌 | 철학연구소, <서산철학강좌>



본 연구원 소속 철학연구소는 대중과의 소통을 위해 <서산철학강좌>를 개최하고 있다. 2017학년도 2학기에는 <기술 시대의 예술>이라는 제목으로 11월 2일부터 23일까지 목요일 오후 6시 30분부터 8시 30분까지 연세대학교 외솔관 110호에서 총 4회에 걸쳐 진행되었다. 해방 후 서양철학을 우리나라에 소개하는 데 크게 기여하신 서산(西山) 정석해 선생님의 뜻을 기리는 마음에서 <서산철학강좌>라고 이름 붙인 이 강좌는 개방적인 학술강연문화의 폭을 넓히고 있다.

140회 (11월 2일)

김숙(중앙대) : 벤야민, “기술복제시대의 예술작품”

141회 (11월 9일)

주재형(서울대) : 보드리야르, “시물라시옹”

142회 (11월 16일)

김혜련(연세대) : 단토, “일상적인 것의 변용”

143회 (11월 23일)

신승환(가톨릭대) : 하이데거, “예술작품의 근원”

인문학연구원 소식

■ 학술행사 | 번역문학 연구소, <융복합시대의 신화>



본 연구원 소속 번역문학연구소는 사단법인 세계신화연구소와 공동으로 “융복합시대의 신화”라는 주제로 학술헌포지엄을 개최했다. 2017년 11월 25일 토요일 10시부터 17시까지 서울시원회관 2층 제2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 학술행사는 연구소 회원들 뿐 아니라 신화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연구소 홈페이지를 통한 사전 참가신청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신화의 전문가들과 신화에 관심을 가진 일반인들이 어우러져 열띤 발표와 토론의 장이 되었다.

사회 : 유명호(정책포럼 ‘한걸음’ 이사)

- 축사: 서흥원(번역문학연구소장), 김원익(세계신화연구소장)
- 임영선(용인대) : 융복합시대 문화콘텐츠 소재로서의 신화 - TV드라마, 영화, 게임 서사를 중심으로
 - 서정일(목원대) : 이성의 힘과 비판정신의 씨앗 - 소포클레스의 『안티고네』
 - 김봉률(동국대) : 호메로스의 『일리아스』, 인신공회를 노래하다

점심시간

- 박광혁(미래드림 내과 원장) : 명화로 보는 그리스 로마 신화
- 김선자(연세대) : 그들은 왜 활을 쏘는가? - 동아시아 신화 속의 영웅
- 김성현(서울 과기대) : 멜랑콜리와 신화
- 이현권(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 무의식의 관점에서 본 신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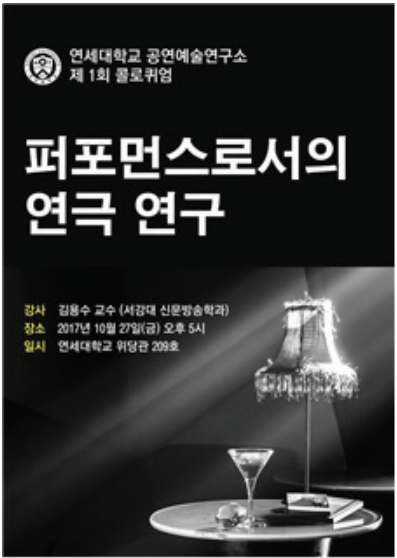
질의응답 및 토론

■ 산하연구소 소개 | 공연예술연구소

‘여기-지금 무대의 감각·사유·치유’를 모토로 하는 공연예술연구소는 2016년 6월 인문학연구원 산하 연구소로 설립되었다. 공연예술은 ‘몸의 예술’이라 할 수 있으며 ‘몸’의 다양한 표현 과정 속에서 연극, 미술, 음악, 무용 그리고 전자기술(디지털)미디어가 만날 수 있는 융합적인 예술이라 할 수 있다. 공연예술의 이러한 ‘융합적인 특징’은 인간 삶의 문제에 대해 사유하고 이를 표현하는 과정에서 인문학적 상상력이 발휘되게 하는 요인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서 비롯되는 상상력은 예술하는 주체와 관객 간의 ‘대화를 통한 치유의 기능’을 발휘한다. 상호 교감을 통해 세상에 대한 인식을 확장하면서 생명력을 얻게 된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공연예술연구소에서는 공연예술을 인문학적으로 접근하는 가운데 연구와 교육을 실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박사급 연구원의 학술연구 모임, 콜로кви엄, 연기아카데미, 학부생 희곡읽기 공부방 등을 주요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다. 2017년 2학기에도 박사급 연구원 학술연구 모임을 지속하면서 콜로кви엄과 학부생 희곡읽기 모임 그리고 연기아카데미를 진행했다.

인문학연구원 소식

■ 콜로кви엄 | 공연예술연구소, <퍼포먼스로서의 연극연구>



본 연구원 소속 공연예술연구소는 2017년 10월 27일에 제1차 콜로кви엄을 주최했다. 서강대 신문방송학과에 계신 김용수 교수님을 모시고 “퍼포먼스로서의 연극연구”라는 제목으로 콜로кви엄을 열었다. 극장의 무대 공연을 넘어서서 이제 일상이 하나의 사회극이 벌어지는 퍼포먼스 공간이라는, 삶과 밀착된 퍼포먼스 이론과 실제에 대한 강연을 들었다.

■ 정기 연기 아카데미 | 공연예술연구소, <양손프로젝트 초청 연기워크숍>



본 연구원 소속 공연예술연구소는 2018년 1월 9일부터 1월 26일까지 (총 21시간) <양손프로젝트 초청 연기워크숍>(양종욱 손성규 배우, 박지혜 연출가)이라는 제목으로 정기 연기아카데미를 진행했다. 양손프로젝트는 연기자와 연출가 네 명으로 구성된 단체로 삶에 대한 문제의식을 ‘몸’의 상상력을 극대화하여 표현하는 공동창작 단체이다. 18명의 학생들이 양손프로젝트의 지도 하에 자신들의 감각을 일깨우며 상상력을 동원하여 공동창작을 하는 연기 공부를 했다.

인문학연구원 소식

■ 학술지 | 인문학연구원 학술지 『인문과학』 제111집 간행



본 연구원은 2017년 12월 31일에 『인문과학』 제111집을 발간하였다. 이번 호에는 특집논문 4편과 일반논문 4편이 게재되었다.

〈일반논문〉

- 정재현(연세대) : 한국 개신교 초기 선교 자료 연구의 의의
- 미 남감리회 선교사 기록을 중심으로 -
- 한미경, 장윤금(숙명여대) : 개신교 교육 선교사들의 편지(1885-1942)
- 북미 기록관 소장 현황
- 방연상, 송경연(연세대) : 기독교가 군산 지역에 미친 사회적 영향
- 남장로교 선교사 편지를 중심으로 -
- 정운형(연세대) : Arthur L. 베커 선교사와 근대 과학 교육
- 박용익, 정연옥(건양대, 경동대) : 의사소통 교육을 위한 응용 대화분석 연구의 방법과 절차
- 최문규(연세대) : 18세기 새로운 신화와 예술
- 〈독일 관념론의 가장 오래된 체계강령〉과 〈신화에 관한 연설〉의 비교 연구 -
- 이상원(한양대) : The Platonic Doctrine of Untruth
- Heidegger's Thoughts on Plato's Theaetetus and the Natural Possibility of Opinion -
- 전해은(서울대) : ‘아픈 사람’ 정체성을 위한 시론

한국연구재단 등재지(KCI)인 『인문과학』은 매년 4월, 8월, 12월에 간행되며, 4월에는 문자문화 전반에 관한 논문을 게재하는 ‘문자특집호’로 발행하고 있다. 『인문과학』에 게재된 논문은 연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홈페이지(<http://inmun.yonsei.ac.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 학술지 | 유럽사회문화연구소 학술지 『유럽사회문화』 제19호 간행



본 연구원 소속 유럽사회문화연구소는 2017년 12월 31일 『유럽사회문화』 제19호를 발간하였다. 이번 호에는 일반논문 10편이 게재되었다.

〈일반논문〉

- 이진영(경희대) : 시와 회화의 대위법: 첼란 고흐 렘브란트
- 파울 첼란의 시에 나타난 상호매체적 양상
- 신성엽(전남대) : 표현주의 회화로 트라클의 시 읽기 - 에스테를레, 코코슈카, 로틀루프
- 유예진(연세대) : 미술평론가 프루스트의 의미와 한계 - 전시리뷰, 서평, 서문을 중심으로
- 이지연(한국외대) : 책으로서의 세계 - 러시아 아방가르드의 시각적 실험과 범기호주의
- 최문규(연세대) : 추의 미적 현상으로서의 혐오
- 홍길표(연세대) : 근현대 서구와 타자 - 토마스 만의 『부덴브로크 가의 사람들』 소고
- 최경은(연세대) : 종교개혁기의 삽화
- 광민석(강원대) : La Poéticité moderne depuis le Symbolisme français
- 김종로(강원대) : 18세기 전반기 프랑스 오페라의 변모에 관한 고찰
- 대본작가 라 모트와 볼테르의 역할에 대하여
- 김미성(연세대) : 편지 그리고 탈주하는 여인들
- 앗시아 제바르의 『사랑, 기마행진』과 『감옥은 넓다』를 중심으로

한국연구재단 등재지(KCI)인 『유럽사회문화』에 게재된 각 논문은 연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유럽사회문화연구소 홈페이지(<http://web.yonsei.ac.kr/ieurope>)에서 열람할 수 있다.

■ 학술대회 | 인문학연구원 HK문자연구사업단 학술대회 <매체와 혁명>



본 사업단은 2017년 11월 3일(금)에 본교 외솔관 526호에서 <매체와 혁명>이란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조대호 인문학연구원장의 인사말로 시작된 이번 학술대회는 King's College London에서 고대 그리스사를 전공한 이상덕(고려대) 교수의 강연을 시작으로 독일 University Augsburg에서 근대 초기 독일사를 전공한 황대현(목원대) 교수가 1630년대에 출간된 소책자와 전단지를 중심으로 발표하였다. 2부에서는 독일 Westfaelische Wilhelms - Univ. Munster에서 서양 미술사를 전공한 전한호(경희사이버대) 교수가 종교개혁과 미술에 대해 발표했으며 이어서 독일 Christian-Albrechts-Universitaet zu Kiel에서 현대 독일어사를 전공한 최경은(연세대) HK연구교수가 종교개혁기의 삽화에 대해 발표하였다. 이번 학술대회는 종교개혁기의 한 지점에 머무르지 않고 다양한 시기의 주제들을 나눌 수 있는 연구의 장이었다.

1부 사회 : 이해민(연세대)

인사말 : 조대호 (인문학연구원장)

- 이상덕(고려대) : 이시스트라토스의 아테네와 매체로서의 판아데나이나 부상 임포라
- 황대현(목원대) : 30년 전쟁기 마그데부르크 함락 및 파괴를 다룬 독일 시사간행물의 보도
- 1630년대 초반에 출간된 소책자와 전단지를 중심으로

토론 : 김혜진(한국외대), 박준철(한성대)

2부 사회 : 이해민(연세대)

- 전한호(경희사이버대) : 종교개혁과 미술
- 최경은(연세대) : 종교개혁기의 삽화

토론 : 정은진(이화여대), 남덕현(홍익대)

■ 해외학자 초청강연 | [제27차] 마츠우라 요시미츠 <글로벌인가 로컬인가? 일본 고등교육 개혁의 과제와 전망>



2017년 12월 11(월) 본 사업단은 일본 게이오대 문과대학장이자 교육학 교수인 마츠우라 요시미츠(松浦 良充) 교수를 초청하여 강연회를 개최하였다. 마츠우라 교수는 게이오 대학의 문과대학 인문사회학과 교육학 교수로서 비교대학사, 대학론, 고등교육 사상사, 미국 교육사, 교육학, 교육론 등을 연구하고 현대 교육학과 교육철학에 대해 활발한 저술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저명한 학자이다. 또한 현재 게이오 대학 이사장, 문과대학장, 일본교육학회 부회장, 교육철학회 기관지 편집 위원장도 겸하고 있다.

이번 연세대학교 강연에서 마츠우라 교수는 “글로벌인가 로컬인가? : 일본 고등교육 개혁의 과제와 전망((グローバルか、ローカルか：本における等 育改 の課題と展望)”이라는 주제로 한국의 사립학교 문제와도 관련된 활발한 강연과 토론을 진행하였다. 이번 강연회는 본연구원 전문연구원인 고인덕 박사의 사회와 통역으로 연세대학교 외솔관 526호에서 약 두 시간 동안 진행되었다.

■ 학술대회 | 학술대회 <문자, 매체, 도시>



본 사업단에서는 2018년 2월 12일 연세대 외솔관 526호에서 <문자, 매체, 도시>라는 주제로 학술대회가 진행되었다. 이번 학술대회는 <문자, 매체, 도시> 클러스터 모임의 연구 성과를 발표하는 자리이기도 했다.

1부 “문자와 매체”, 2부 “문자와 도시”, 3부 “매체와 도시”로 나뉘어 진행된 이번 학술대회는 교수와 대학원생 등 다양한 참가자가 어우러져 다양한 시대와 공간을 매개로 문자와 매체가 도시와 맺고 있는 관계에 대해 깊은 토론을 이끌어낸 자리가 되었다.

1부 : 문자와 매체

사회 : 최경은 (연세대)

- 광민석(강원대) : <올리포OuLiPo 그룹과 문학의 다중매체화>
- 박동준(한양대) : <문맹자들을 위한 문자>

2부: 문자와 도시

- 남덕현(홍익대) : <대도시에 대한 고고학 탐사보고서 - 발터 벤야민의 베를린>
- 김미성(연세대) : <낙서에서 문자예술로: 파리의 그래피티 연구>
- 진인혜(목원대) : <문자로 재현된 도시, 카르타고>

3부: 매체와 도시

- 장유정(단국대) : <대중가요로 보는 서울 노래 변천사>
- 박애경(연세대) : <장소에 새긴 노래, 노래에 새긴 장소 - 김창기론>

■ 문자세미나 | [제35차] 고인덕 <매체적 관점에서 고찰한 하도낙서(河圖洛書)>



본 사업단은 2017년 11월 30일(목) 외솔관 427-1호에서 제35차 문자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매체적 관점에서 고찰한 하도낙서(河圖洛書)>라는 주제로 본연구원 전문연구원으로 재직중인 고인덕 박사의 발표가 있었다.

■ 대중강좌 | 서울남부교도소 <제5차 수행자를 위한 인문학강좌>



본 사업단은 인문한국(HK)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연구 성과의 사회적 확산을 도모하고, 수행자 집중인성교육을 위한 인문학 강좌를 지원하고자 지난 2015년부터 인문학강좌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제5차 수행자를 위한 인문학강좌에서는 “삶의 안내자로서의 인문학”이라는 주제 아래 2017년 9월 27일부터 12월 14일까지 총 10회의 강연을 진행하였다. 서울 남부교도소장은 매 학기 이어지는 인문학강의로 인해 수행자들의 인문교양에 대한 소양이 함양되었다고 보고 본 연구단에 감사패를 전달하였다. 서울 남부교도소장은 특히 인문교양강의가 자기존중과 타인에 대한 이해심을 향상시켜 수용자의 건전한 사회복귀에 기여한 공이 크다며 감사의 말을 전했다. 강연자와 강의 일정 그리고 내용은 다음과 같다.

- 09/27 최경은(인문학연구원 HK연구교수) : 박해의 역사 - 독일의 반유대주의
- 10/11 연규동(인문학연구원 HK연구교수) : 세종대왕과 훈민정음
- 10/18 고인덕(연세대 중문과 강사) : 한시의 세계
- 10/25 남덕현(연세대 독문과 강사) : 독일인과 독일문화
- 10/31 광민석(연세대 불문과 강사) : 생활 속의 그리스 신화
- 11/15 박동준(인문학연구원 전문연구원) : 교육기부문화
- 11/20 윤태원(인문학연구원 전문연구원, 아동문학가) : 환경과 동화
- 11/29 이전경(연세대 국문과 강사) : 말과 삶(비폭력화법)
- 12/6 이병철(연세대 사학과 강사) : 환경과 역사의 만남
- 12/14 조대호(연세대 철학과 교수, 인문학연구원장) : 호메로스의 <일리아스>

■ 대중강좌 | 서대문도서관 인문학강좌, <연세대학교와 함께 하는 인문아카데미>



본 사업단에서는 지난 2016년부터 재능 기부의 일환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서대문도서관과 함께 인문아카데미를 진행하고 있다. 올해에도 11월 2일부터 매주 목요일 8주간 ‘연세대학교와 함께하는 인문아카데미’를 진행했다. 이번 강좌는 <문자, 매체, 예술>을 주제로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무료로 운영되었다.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시민들이 인문교양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뜻 깊은 시간이 되었다.

- 11/2(목) 고인덕 : 눈으로 들어오는 한시(漢詩)
- 11/9(목) 고인덕 : 한자의 특징을 이용한 놀이
- 11/16(목) 최경은 : 문자의 확산, 알파벳의 발명에서 확산까지
- 11/23(목) 최경은 : 루터성서의 출판 역사
- 11/30(목) 광민석 : 파리 - 기억과 창조적 상상력의 공간
- 12/7(목) 광민석 : 프랑스 - 과거의 역사, 현재의 기억 그리고 미래의 전망
- 12/14(목) 라영순 : 예술가들의 이탈리아 여행, 그리고 기록 - 18세기 독일, 괴테의 시선
- 12/21(목) 라영순 : 예술가들의 이탈리아 여행, 그리고 기록 - 19세기 영국, 디킨스의 시선

■ 대중강좌 | 문자아카데미 개설(2017-가을학기)



본 사업단에서는 학문후속세대 양성사업의 일환으로 쉽게 접할 수 없는 문자관련강좌를 개설하고 있다. 2017년 가을 학기에 “청나라의 문자와 언어”, “고전어 강좌”의 두 가지 주제로 각각 <만주어 초급>과 <고전 그리스어 1>, <라틴어 초급강독 2>의 총 3개 강좌를 9월부터 11월까지 진행하였다. <만주어 초급>은 연규동 HK연구교수가, <고전 그리스어 1>은 김기영, <라틴어 초급강독 2>는 김진식 박사가 각각 맡아 강의하였고 수강료는 무료였으며 선착순으로 참가자를 모집하여 진행되었다.

■ 대중강좌 | 문자아카데미 개설(2018-겨울학기)



본 연구원에서는 학문후속세대 양성사업의 일환으로 쉽게 접할 수 없는 문자관련강좌를 개설하고 있다. 2018년 겨울학기에는 “고전어 강좌”를 개설하여 <고전 그리스어 I>, <라틴어 초급 산문 강독 3 : 카이사르의 갈리아 전기>, <뼈기문자 - 함무라비 법전 읽기>의 총 3개 강좌를 1월 3일부터 2월 23일까지 진행하였다. 각각 김기영, 김진식, 윤성덕 박사가 맡아 강의하였으며 매회 2시간 혹은 3시간씩 강의하였다. 참가비는 무료였으며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아 진행되었다.